초기부터 대승까지, 붓다 입멸관 변천 '총망라'

주목! 학술서 명오 스님의 '붓다 입멸 에피소드 연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석가모니 부처님의 열반, 즉 붓다의 입멸은 당시 불교도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영원불멸의 존재였던 붓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붓다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제행무상의 이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교단적으로는 위기이기도 했다. 교조인 붓다가 사라진 교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숙제가 됐다. 붓다의 육체적 죽음을 두고는 이교도들의 폄하도 이어졌다. 실제 이교도들은 붓다가 보시받은 음식이 독으로 변해 병이 났다거나 식탐이 많아 과식해 설사병에 걸렸다는 주장을 폈다. 이들에 대한 반박도 필요했다.

붓다의 입멸은 기원전 3~4세기 경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다. 그렇기에 붓다 입멸을 어떻게 봐야 하며, 교단은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붓다의 입멸을 통시적으로 연구한 학술서인 〈붓다의 입멸 에피소드 연구〉가 출간됐다.

동국대 강사로 활동 중인 명오 스님이 저술한 〈붓다의 입멸 에피소드 연구〉는 붓다의 입멸 과정부터 직후 일어난 일들, 그리고 초기 · 부파 · 대승불교에서 붓다의 입멸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조명한다. 붓다의 입멸을 놓고 초기불교와 부파불교, 대승불교의 견해를 통시적(通時的, diachronic)으로 연구한 것은 이 책이 최초다.

저자는 붓다의 입멸에 관한 경전과 문헌인 〈마하빠리닙바나 숫따〉와 그에 상응하는 빠알리 경전, 한역 〈열반경〉, 〈대승열반경〉 등을 분석했고, 이에 나타난 붓다관(佛陀觀)을 살폈다. 또한 쭌다가 올린 마지막 공양에 대한 견해, 붓다의 수명에 대한 견해 · 사후 존속 · 교단 유훈의 변천들도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다.



명오 스님은…동학사 승가대학과 동국대 선학과 ·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호주 시드니대 종교학과서 석사를 받았고, 동국대 불교학과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안 대강백으로부터 전강을 받았다. 동학사 승가대학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동국대 강사로 활동 중이다.

박사학위 논문 보완해 출간
입멸 관련 첫 '통시적' 연구
초기~대승불교 텍스트 섭렵
"초기 生身, 대승 法身 집중
초기-부파 거쳐 대승도 성립"

명오 스님에 따르면 초기 경전인 〈마하빠리닙바나 숫타(대반열반경)〉은 붓다의 입멸을 통하여, 붓다의 본질과 가르침을 전하고자 했다. 그러기에 역사적 불타관을 표방했으며, 붓다의 생신(生身)에 중점을 뒀다. 하지만 이런 불타관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고, 부파불교는 이를 교학적으로 해명해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법신(法身) 사상이다.

대승불교는 법신 사상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 〈대승열반경〉은 법신상주(法身常住), 불입열반(不入涅槃), 상락아정(常樂我淨)의 불타관을 제시했고, 논쟁의 소지 자체를 없앴다.

명오 스님은 초기-부파-대승으로 이어지는 붓다의 입멸에 대한 견해는 단절된 것이 아닌 연결된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스님은 "초기불교는 붓다의 생신에 대승은 법신을 집중했다. 대승의 법신 사상은 초기와 부파불교를 거쳐 형성된 것이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붓다의 입멸 에피소드 연구〉가 더 가치 있는 이유는 명오 스님이 병마에 굴복하지 않고, 부처님의 입멸에 관한 학문적인 불사(佛事)를 완성하였기 때문이다.

명오 스님은 7년 전 암 진단을 받았다.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스님은 붓다의 입멸을 주제로 박사 논문을 완성했다. 〈붓다의 입멸 에피소드 연구〉는 이렇게 완성된 박사논문을 다듬고 보완해 만들어졌다.

명오 스님은 붓다의 입멸을 주제로 한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병을 이겨낸 힘을 얻었다고 술회했다.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서 춘추전국시대 좌구명은 실명한 뒤 〈국어〉를 저술했고, 손빈은 다리가 잘리는 형을 받고 병법을 편찬했다는 일구(一句)도 스님에게 큰 힘이 됐다.

명오 스님은 "경전을 통해, 죽음이 전제된 무상한 현실에서 영원불멸한 열반의 세계를 엿볼 수 있었고, 부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면서 "부처님께 귀의해 승가의 일원으로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불자들에게도 〈열반경〉을 꼭 읽어볼 것을 권유했다. 붓다의 유훈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또한 〈열반경〉은 "일체중생은 본질적으로 불성을 갖추고 있다(一切衆生 悉有佛性)"는 불성 사상의 기본이 담겨있어서다.

"개에도 불성이 있다는 조주 선사의 화두가 나올 수 있던 것은 불성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종선의 근거는 〈열반경〉에 있죠. 〈열반경〉이 대승불교에 미친 영향은 지대합니다. 〈열반경〉을 우리 불자들도 이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경전이라고 생각합니다."

韓 치미 아름다움, 세계에 알린다

국립중앙博 · 스미스소니언博 '한국의 치미' 특별전

익산 미륵사지 치미 등 20점
미국서 전시… 특강도 예정돼

치미(鴟尾)는 고대 목조건축에서 용마루 양 끝에 높게 부착했던 장식기와로, 길상(吉祥, 운수가 좋을 징조)과 벽사(辟邪, 귀신을 물리침)의 상징물로도 활용됐다. 중국에서 시작된 치미는 한국에는 4세기 무렵 전래된 이후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목조건축의 중요한 요소로 사용됐다. 한국의 치미가 가진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전시가 미국에서 열린다.

미국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관장 체이스 로빈슨)은 '한국의 치미(Once Upon a Roof: Vanished Korean Architecture)' 특별전을 5월 21일 개막했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민병찬)과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특별전은 미국 최초로 한국 고대 장식 기와인 '치미'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서 한국 전통 건축 문화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이번 전시에는 백제 왕실 사찰이었던 미륵사 터에서 출토된 치미와 백제 부소산성의 사찰 터에서 출토된 치미, 통일신라시대 월지에서 출토된 치미 등 20여 점이 소개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전시 출품 문화유산은 지금은 전하지 않는 한국 고대 건축 전통의 아름다움, 뛰어난 공법과 그 규모를 가늠하게 해준다"며 "전시장에는 유물 외에도 백제 건물 복원 모형, 치미의 기원, 제작 방법, 미륵사의 역사, 최근의 고고학적 발견에 대한 이야기 등에 대한 풍부한 설명 자료와 영상 자료가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산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치미.

전시 외에도 한국 전통건축의 우수성을 알리는 다양한 특강도 진행된다. 오는 7월 26일에는 이번 특별전시의 일환으로 '한국 고대 건축의 맥락(Ancient Korean Architecture in Context)'을 주제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 행사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연구자들과 미국 현지 학자들이 참여해 한국의 고대 건축과 삼국과 통일신라시대의 기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9월에는 윤상덕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과장의 주재로 경주 동궁과 월지, 국립경주박물관 월지관을 오가며 유적과 출토 유물들을 소개하고 실시간으로 관객과 질의응답을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대중 강연도 이뤄진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불교연구기관 · 노르웨이 문헌硏 업무협약

5월 24일 협약식 개최

동국대 불교대학을 비롯한 불교학 연구기관과 노르웨이 문헌학연구소가 업무 협약을 맺고 불교학 연구에 나선다.

동국대 불교대학(학장 황순일), 불교문화연구원(원장 정덕),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소장 주경), HK+사업단은 5월 24일 노르웨이 문헌학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



이날 협약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들은 △불교아카이브와 연구자료 협력 △연구연계, 특강 및 학술대회 초청 △연구자료, 출판 등의 연계 △상호 교환교수, 객원연구원 방문 등의 협력 사업을 전개한다.

또한 △다언어 다문자 불교문헌 디지털 입력 △불교자료 데이터 베이스 및 인터넷 프로그램 공유 및 협업 △연구자료 상호교환 및 기술교환, 자료발행 등을 통해 한국과 노르웨이 인문학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노르웨이 문헌학연구소장은 옌스 브로빅(Jens Braarvig) 오슬로대 교수가 소장으로 있다. 옌스 브로빅 교수는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초청으로 동국대 특강과 학술대회에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한편, 동국대 불교학 연구기관들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향후 유럽의 다른 국가의 불교학계와도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반야불교문화硏, 제12회 반야학술상 공모

7월 15일까지 접수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이 제12회 반야학술상을 공모한다.

반야학술상은 최근 5년간 불교학 및 불교문화 관련 연구업적이 뛰어나고 교육 및 학술활동이 활발한 중견급 이상의 연구자나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이 지난 연구자, 이에 준하는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추천받아 심사를 거쳐 1명을 선정해 시상한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1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추천서는 반야불교문화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면 되며, 추천 후보자의 최근 5년 간의 대표업적(저서와 논문 1편)을 명시해야 한다.

접수는 이메일(gugujs@hanmail.net)로 받으며, 마감은 7월 15일까지다. 문의 (010)-4731-3471

신성민 기자



